

□ 해설프로그램 개요서(2018년도 전국해설경연대회 시나리오)

소 속 기 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성 명	천서경
대 상	자유학기제 수업에 참가한 중학생 20명		
제 목	마음의 뿌리를 찾아서...		
해 설 주 제	역경을 이겨내는 소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각박한 사회 속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하기		
활 동 목 표	소나무이야기를 통해 참가자의 환경감수성을 키우고 존재가치와 나아갈 힘을 일깨운다.		
해 설 재 료 (준 비 물)	소나무 모형, 소품, 사진자료, 해충기피스티커, 솔방울 드림 캐처, 구급키트, 꽃 마이크, 청진기, 주사기모형 등	소요시간 (분)	7분
유 의 사 항	저지대이므로 큰 위험요소는 없으나, 해충기피스티커 붙여주기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 단계	해 설 주 제	주 요 내 용	준비물 (교구재)	소요시간 (분)
도입	해설사 소개	자기소개 및 안전관련 주의 사항 전달	구급키트 기피스티커	1'00'
	프로그램 소개	환경감수성이란	소나무향 스프레이	1'00'
주제별 해 설	소나무의 생존전략	소나무가 자신을 지키는 방법	소나무 모형	1'00'
	솔잎혹파리로 고통 받는 소나무	소나무의 머리가 노랑게 물든 이유	솔잎혹파리 사진자료	1'00'
	소나무에게 희망을 주는 박새	작은 박새의 치유	박새사진 꽃 마이크	1'00'
	노랑머리 소나무의 의미	소나무의 의미와 당부	주사기 청진기	1'30'
마무리	마음을 지키는 힘	마음의 뿌리를 찾아 자존감을 일깨우자.	솔방울 드림캐처	30'

□ 해설프로그램 시나리오

소 속 기 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성 명	천서경
대 상	자유학기제 수업에 참가한 중학생 20명		
해 설 주 제	소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각박한 사회 속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하기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 단계	해 설 주 제	내 용
도입	해설사 소개	<p>안녕하십니까. 태백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천서경입니다. 저는 자유학기제 수업에 참가한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환경감수성을 키우자.' 라는 슬로건하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p> <p>안녕하세요! 저는 태백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천서경입니다. 저는 늘 숲에서 제 자신을 '꽃받침'이라 소개합니다. 자연이 꽃이라면 가장 번성한 꽃은 인간이죠. 그 인간을 바깥부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의 '꽃받침'이죠. 그러니 저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주인공 '꽃님'입니다.</p> <p>날씨가 화창한데 하늘을 향해 기지개를 켜 쳐볼게요! 무엇이 보이나요? 빨간 단풍잎도 참 예쁘고 하늘도 참 예쁘네요. 이곳은 소나무의 군락이 멋진 태백산 백천마을의 소나무길입니다.</p> <p>(해충기피스티커를 붙여주며) 저지대 탐방로이기에 큰 위험요소는 없으나, 서늘해진 날씨에도 벌레가 있을 수 있으니, 해충기피스티커를 붙여드릴게요!</p>
	프로그램 소개	<p>오늘은 환경감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p> <p>이는 자연을 애 닳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보통 동물을 보고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만 이 숲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았습니다.</p> <p>우리가 해충기피스티커를 붙인 것처럼 이 친구도 해충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죠. 맞습니다. 그건 늘 푸른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고 옛날부터 가구, 집 등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온 '문화재' 같은 나무죠.</p>

주제 별 해 설	자신을 지키는 방어막	<p>(소나무 향기를 뿌리며)</p> <p>숲에 오니 어떠세요? 이 상쾌한 냄새는 우리 사람들에겐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등의 이점을 줍니다.</p> <p>그러나 이 향기는 식물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의 냄새죠. 해충이나 병원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뿜어내는 물질입니다. 이것을 피톤치드라 합니다. 모두 들어본 적 있죠? 식물 중에서도 이곳에 많은 소나무, 잣나무가 가장 강력한 방패 물질을 뿜어낸다고 합니다.</p> <p>대단하죠? 이 대단한 친구인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곳엔 많은 소나무가 있지만, 바로 이 '노랑머리 소나무'가 오늘의 주인공이죠.</p>
	무너진 방어막	<p>척박한 바위틈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도 맺은 이 친구는 지금 누군가와 싸우고 있습니다.</p> <p>제가 보니 이기기 힘든 상대를 만난 것 같네요.</p> <p>강력한 방어막을 가진 소나무를 함락시킨 건 '작은 벌레'입니다.</p> <p>그건 1mm,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진자료) '솔잎혹파리'라는 벌레 때문입니다. 이 벌레가 솔잎의 진액을 모두 빨아먹어 '소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고 결국 말라 죽게 만들죠.</p> <p>바위틈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수백 년을 사는 소나무가 작디작은 벌레에게 당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 생각에 소나무는 착하고 솔잎혹파리는 나쁜 것입니다. 그 자체를 비난 할 수는 없죠.</p> <p>그러나 숲은 다양한 생명이 함께 살며 그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자연파괴'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균형 속에서 생긴 해충으로부터 소나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소나무만을 위한 약', 즉 농약을 뿌려야 합니다. 그 또한 숲을 망칠 수 있는 일이죠.</p>
	희망과 절망의 사이에서	<p>고민하던 사이, 작은 새 한 마리가 소나무에게 날아왔습니다.</p> <p>그리하더니 작은 솔잎혹파리를 쫓아 먹고 있네요.</p> <p>농약만이 해결책이 아닌란 희망을 갖게 했죠.</p> <p>희망의 새, 박새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p> <p>(박새 소리가 나며)_청진기를 착용하고 하얀 장갑을 낀다.</p> <p>"안녕하세요? 인간여러분. 저는 소나무 주치의 닥터. 박입니다.</p> <p>여러분, 손을 앞으로 내밀어보세요! 그리고 펼친 손바닥을 모아 얼굴에 가져다댑니다.</p> <p>선서! 우리는 모두 아픈 소나무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네?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p> <p>저의 오랜 친구인 나무가 많이 아파요.</p>

		<p>그래서 지금부터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배경음시작) 메쓰~ (칼로 애벌레를 떼어내려 한다.) 쉽지 않은 걸? (두 번의 시도 끝 때어낸다.) 주사~ (주사기를 소나무에게 꽂는다.) 휴, 수술경과는 매우 좋지만 환자의 안정이 중요하니, 기다려보죠!” 노랑머리 소나무가 과연 어떻게 됐는지 소나무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안녕? 난 노랑머리 소나무야. 모든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가렵던 것도 사라지고 기운을 회복하고 있어. 정말 고마워. 난 키 작은 내가 싫어서, 빨리 큰 어른 나무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기침이 나고 아파도 성장에만 집중했지. 이렇게 아프고 나서 느낀 건 빠른 성장보단 꾸준한 성장이 더 의미 있단 거야. 친구들도 나처럼 아픈 것을 참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어!”</p> <p>네, 노랑머리 소나무의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아무리 소나무가 강력한 방어물질을 내뿜어도 자신을 갉아먹는 작은 벌레에겐 속수무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랑머리 소나무는 어른들이 만든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무한경쟁 속에서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p> <p>중학생인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스스로 고민하고 극복해야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p>
<p>마무리</p>	<p>마음을 지키는 힘</p>	<p>‘참새가 작아도 알을 까고 제비가 작아도 강남을 간다. 작아서 못할 것은 없다.’라고 저의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p> <p>친구들도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러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뿌리’를 찾았으면 합니다.</p> <p>노랑머리 소나무가 고마운 여러분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방어막인 ‘솔향기’를 담은 ‘솔방울 드림캐처’입니다. 소나무의 향기가 가득한 이 길을 언제나 여러분과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p> <p>감사합니다, 태백산국립공원 ‘꽃받침’해설사 천서경이었습니다.</p>